

도, 민생경제 핵심기관 현장 점검 나서

김 지사, 경제통상진흥원·테크노파크 방문해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지역 경제 활력 위한 현장 행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분야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관과 도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김 지사는 먼저 경제통상진흥원을 찾아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와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피지컬 AI, 방위산업, 이차전지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략산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고 있다.

대기업 유치 성과를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연계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 구조 전환을 이룰 핵심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도는 출연기관이 수행 중인 기업지

원, 일자리, 산업육성 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기관 일수록 현장 대응력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출연기관이

한 팀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만호 기자

도, 어촌 해양수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비안도·가력선착장 방문... 인프라 확충·양식환경 개선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어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양수산 주요 사업 점검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5일 군산시 비안도와 부안군 가력선착장 일원을 방문해 주요 해양수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비안도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연안정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어촌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시설 운영 상태, 공사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비안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김 양식장 환경 악화와 어촌 인프라 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위해 이동 김 양식장을 위한 소파제 설치와 어촌 뉴딜 후속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어 가력선착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방파제 및 물양장 조성 등 공정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어항 지정 추진과 연계한 개발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도, aT 본사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답례품 전시·이벤트... 기부제 인지도·타지역 참여 확산 유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남 나주 aT 본사에서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수산물품 유통 전문기관인 aT와 협력해 전북의 우수 답례품을 널리 알리고, 타지역 국민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고향사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관리를 지지체로 설정하면 쌀 500g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천연꿀과 쌀 또는 귀리와 쌀을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됐다.

또한 천연꿀, 참기름, 추어탕 청자제

품, 친환경 돌솥 등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함께 주택택배 안전꾸러미, 취약계층 위생용품 지원 등 재기부 상품도 전시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땅콩 약과, 떡 등 인기 답례품 시식 코너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며 현장 호응을 이끌어냈다.

도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대면 홍보를 확대하고, 전북의 답례품 경쟁력을 앞세운 참여 유도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TP, '첨단산업아카데미' 수행 기관 지정 현판식 개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인력 공급 핵심 거점도약 기반 마련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이차전지 분야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배터리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4년부터 배터리 소재·부품 분야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총 135명 중 128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력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리공업고등학교의 이차전지 분야 특화 마이스터고 지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부터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규택 원장은 "이번 지정은 전북이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이차전지 분야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차전지 인력양성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 제4기 총괄·공공건축가 출범... 공공건축 품격 높인다

총괄건축가 1명·공공건축가 29명 위촉... 민간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공공건축 전 과정 전문자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일 도청에서 '제4기 총괄·공공건축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29명을 위촉하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방향과 공공건축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 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과 도시환경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총괄건축가는 도의 공간정책과 전략 수립을 총

괄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에 참여해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2020년부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건축 사업 자문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4기에서도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공공건축 전반의 방향

성을 설정하고, 공공건축가들이 사업별로 배정돼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 있는 밀착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주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 사업에 참여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전문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미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능 중심의 건축을 넘어 전북민의 정체성을 담은 공공공간 조성과 랜드마크 창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전주, 방향 전환보다 지속 발전·정책 완성 더 중요"

전북발전연합회,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전북발전연합회가 민선9기 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범기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회원 20여명은 2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 완성을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한양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가 강하다"며 "전주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재정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는 호남권의 핵심 도시임에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우범기 예비후보의 민선 8기 시정 성과를 주요 지지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 부지 해결, 호남제일로 복합 스포



전북발전연합회 회원 20여명은 2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 완성을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츠타운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추진했다"며 "전주시 예산 2357000억원 시대와 국가예산 3년 연속 25% 확보는 대가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4년이 전주의 미래를 설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이를 실행하고 완성하는 시기"라며 "지금 방향을 바꾸기보다 지속성과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전주시 재정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합회는 "전주시 지방채는 2025년 말 기준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약

20%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 기준인 25%보다 낮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는 공원·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과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조성 등에 투입된 것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주시 자산 규모 또한 전국 상위권으로 재정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양 회장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우범기 예비후보가 전주의 대도약을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장연국·최명철 예비후보 28일 공동 선거사무소 개소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예비후보와 최명철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이하 더불어민주당)가 공동 선거사무소를 열고 28일 개소식을 갖는다.

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3-1 동국빌딩 3층(서일초등학교 삼거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도의원과 전주시 시의원에 나서는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목표로 공동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한편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두 예비후보는 공동 선거사무소를 열어 "서신동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민주당 공천을 받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김양원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비전선포식

김양원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25일 부안읍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 예비후보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부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공약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부안으로 유치하고, 변산 일원에 주거·의료·교육·문화

시설을 갖춘 명품 주거복합단지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및 데이터센터 유치 구상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부안군민주식회사' 개념을 통한 군민 참여 행정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읍·면 순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1면에 이어... 전북, K-스마트 조선으로 산업 대전환

이를 위해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등 지역 대학과 전북기계공과대학과 군산기계공과 등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융합·도장 등 현장 기술인력을 물론, AI 기반 공정 관리 인력까지 폭넓게 양성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곧바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산조선소 인수 절차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투자 규모와 고용 계획 등이 확정된 이후 논의될 예정"이라며 "실시는 5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군산조선소 부활은 단순

한 산업 프로젝트를 아니라 전북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기업과 대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8년 전북 기술로 만든 완성선이 군산 앞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넘어 스마트·친환경 조선 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이번 구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이 제시한 K-스마트 조선 모델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만호 기자